

전두환, 오는 27일 광주 재판 출석한다

法 “불출석 허가 취소, 소환장 송달”

공판기일 인정신문 등 갱신절차 진행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 가부 판단”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가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에 진행

된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정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구, 증거목록 제출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의 경질 등으로 인해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석 허가를 내일자

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전씨와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며 “증거목록 등을 제출받고 그동안 법정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이 증인이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요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일일이 채택한 증거 요지를 말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만큼 갱신절차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재판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씨가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이) 미흡하게 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갱신절차만 진행하는 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그 다음에는 검찰측 증인 2명 신문하고 그 다음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 전씨가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며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는 헬기사격의 목격 시점이 언제인지와 헬기종류, 총기의 종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구두로 채택됐던 부분인데 현장검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택결정을 취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시-자치구 영상회의 개최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전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시-자치구 영상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5개 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전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코로나로 개학 연기에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혜택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시간당 9890원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학연기 기간, 정부지원 확대 특례를 적용해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지원 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120% 이하는 55%에서 60%로, 150% 이하는 15%에서 50%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기준소득 초과로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150% 초과 가정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학생 가정에 공급

학생급식과 계약재배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104억 투입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도내 26만여 명의 학생 가정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은 전남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특수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꾸러미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초·중·고 개학일의 4차례 연기와 선별적 온라인 개학, 기약 없는 오프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40여 일 이상 지속 중단됨에 따라 학생들과 위기에 빠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들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라 기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 104억 원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동구, 산수2동 지보협 방역·청소 실시

광주 동구 산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배용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깨끗따뜻 방역·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역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한부모·장애인세대 2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외부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방지와 해충퇴치까지 청결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서구, EM발효공급기 시범설치

광주 서구가 품암동 행정복지센터에 EM발효공급기를 시범설치하고 EM발효액 공급을 개시했다.

이엠(EM)은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악취제거 등에 탁월한 하천에 유입시 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유용한 미생물이다.

이엠(EM)을 설거지, 세탁, 욕실청소에 합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번번 품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발효공급기는 1회에 500L의 EM발효액을 생산되며 주민들은 빈 페트병을 가져와 1.8L씩 수령해 갈 수 있다.

EM발효액은 월 2회 생산되며 매일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공급을 개시해 9시부터 20시까지 수령 가능하다.

남구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특별 승진한다”

광주 남구는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혁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남구는 6일 ‘행정환경이 급변해 법과 제도 및 현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광주 북구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를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물놀이 사고·△가스사고·△운열질환 진단금·△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광산구 우산동에 코로나19 극복 나눔 이어져

1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주민 기부행렬로 붐볐다.

오전 11시 40분 마스크를 착용한 50대 여성이 동 직원에게 종이방을 건네고 갔고, 오후 2시 30분에는 소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30대 여성 2명이 쌀과 손소독제 등 7종의 물품이 담긴 박스를 전달하고 갔다. 오후 3시에는 방송인 귀국근 씨가 돌봄 이웃들에게 나눠 달라며 김 20박스를 기부했다.

익명의 오전 기부자가 남기고간 종이상자 안에는 손 편지와 청·백·흑색 마스크 44매, 현금 15만원이 들어있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전국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
급여	419,111원	217,711원	132,111원	81,111원	51,111원	-
비율	1.74배	1.73배	1.67배	1.69배	1.91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령 157-1000